

慧刀亂麻 혜도난마
正法實現 정법실현

"부조리들 지혜의 칼로 모두 잘라
세상에 바른 법을 실현하라"

본지 지령 1000호 특집에 당시 덕숭총림 방장이던 설정 스님이 내린 휘호다. 감로수 같은 맑고 향기로운 글들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려 세상에 목탁같은 존재가 되라는 큰 가르침이었다.

'신심 · 원력 · 공심' 강조한 올곧은 수행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 리더십
쉼 없이 수행한 선승이면서
종회의장 등 행정력도 '탁월'

선승은 잠시 좌복을 물리고
불교 발전 위해 거리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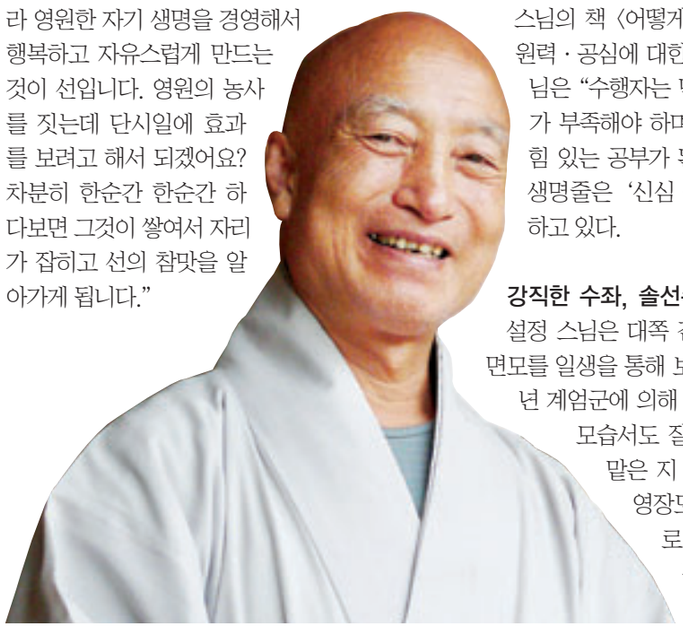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인 설정 스님은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한 선승의 풍모가 강하다. 스님의 은사는 덕숭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인 원담 스님이었고, 제자인 자신도 뒤를 이어 방장이 될 정도로 수행력을 총림 대중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종단이 어려울 때면 앞에 나서 수습한 후 돌아보지 않고 걸망을 메고 떠났다.

사문의 길에 나서다

설정 스님은 1941년 충남 예산 덕산면서 태어났다. 주역의 대가였던 아버지는 만공 스님에게 계를 받을 정도로 돈독한 불심을 가졌다. 14살에 신심 깊은 아버지의 생신불공을 위해 수덕사에 들렀던 스님은 그대로 사문의 길로 나섰다.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설정 스님은 1955년 수덕사에서 혜원 스님 계사로 사미계를,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친 후에는 수덕사 · 봉암사 · 상원사 등 제방선원서 간화선 수행에만 전념했다.

이렇듯 간화선 수행은 설정 스님의 63년 출가 노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 2011년 4월 본지 인터뷰 '선지식을 찾아서'에서 설정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접근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있다.

"선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은 하루를 경영하고, 사상은 내일을 경영하고, 선은 영원을 경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 생명을 경영해서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선입니다. 영원의 농사를 짓는데 단시일에 효과를 보려고 해서 되겠어요? 차분히 한순간 한순간 하다보면 그것이 쌓여서 자리가 잡히고 선의 참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신심 · 원력 · 공심' 스님의 기본

설정 스님의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신심 · 원력 · 공심- 새로운 한국불교, 교구에서 시작됩니다'다. 이 역시 설정 스님의 삶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2012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바른 수행자상에 대해 설명하며 '신심 · 원력 · 공심'을 강조했다.

당시 스님은 "스님은 부처님 진리에 대한 신심과 중생제도의 원력, 그리고 공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서 "공심이 결여되면 부정부패가 온다. 신심 · 원력 · 공심을 가지는 스님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신심 · 원력 · 공심에 대한 강조는 나타난다. 설정 스님은 "수행자는 먹을 것, 입을 것, 잠, 3가지가 부족해야 하며 공부와 노동이 함께 해야 힘 있는 공부가 된다"면서 수행자가 지녀할 생명줄은 '신심 · 원력 · 공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직한 수좌, 솔선수범하는 어른

설정 스님은 대쪽 같이 올곧고 강직한 수좌의 면모를 일생을 통해 보였다. 엄혹했던 시절, 1980년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처한 모습서도 잘 드러난다. 수덕사 주지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법난이 일어나 영장도 없이 대전 보안대 지하실로 잡혀간 스님은 사흘 동안 독방서 잠을 자지 않은 채 단식하며 좌선했다. 매일 같이 조서를 쓰라는 강요에도 한 줄도 쓰지 않고 버텼고, 그곳서 있던 일을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 역시 단호히 거절했다.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당시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며 청와대 불교 지도자 조찬모임을 단박에 거절한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 역시 설정 스님을 설명하는 수사(修辭)다. 2011년 1월 설정 스님과 맏상좌 주경 스님이 함께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경 스님이 밝힌 일화들은 이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언젠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마친 다음날 아침 도량에 걸렸던 등이 모두 걷어져 있어 깜짝 놀랐는데 이는 모두 설정 스님이 직접 거뒀다. 눈 많던 어느 겨울날, 도량의 눈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 참배객들은 모두 "이 절 스님은 참 부지런하다"고 칭찬했다. 이 역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설정 스님이 눈을 치웠기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스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아랫사람도 대충할 수 없다"면서 "산중에 어울리는 어른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한 심우도의 마지막은 '입전수수(立廛垂手)'다. 깨달음을 얻고 난 후 거리로 돌아가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를 의미한다. 이는 불교의 궁극적 뜻이 중생제도에 있음을 상징화한 것이기도 하다.

선승은 잠시 좌복을 물리고, 거리로 나왔다. '신심 · 원력 · 공심'으로 '불교다운 불교'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신성민 기자

의혹 돌파 · 종책 홍보… 숨가빴던 35일

설정 스님 총무원장 당선까지의 기록

"종단이 처한 어려움을 종도들과 어떻게 헤쳐나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교단을 만들어 가는 데 여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8일 수덕사 취송당서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 설정 스님은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밝혔다.

스님은 "뜻있는 사부대중과 더불어 연구하고 계획해 종단 발전을 위한 인생의 마지막 불사를 하는 것이 내 바람"이라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서울대 졸업 문제에 대해 정면돌파하는 자리기도 했다. 스님은 "학력과 관련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 오해가 생긴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학력 논란은 승려로서 저의 불찰이고 부덕"이라고 참회했다.

이후 10월 12일 총무원장 당선까지 35일 동안 설정 스님은 종도들을 만나고 의견과 경책을 들으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9월 18일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호 1번을 배정받았다. 첫 일정은 서울 돈암동 흥천사의 '느티나무어린이집' 방문이었다. 설정 스님은 어린이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줄 것을 당부했다. 흥천사 주지 금곡 스님과 선거대책본부 스님들에게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 포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후보자 자격심사 마친 9월 2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설정 스님을 비롯한 후보들은 종책발표 기자회견 등 선거운동에 본격 들어갔다.

설정 스님은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종책설명회 및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포교시스템 확립을 통해 한국불교와 종단의 저력을 열어 보일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10대 정책 기조를 공약으로 내놨다.

10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공약들을 종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정 스님은 24개 교구본사 등을 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10일 가량의 연휴가 겹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설정 스님 당선까지 35일 일지

9월 8일 수덕사 취송당서 기자간담회
– "종단 발전 위한 인생 마지막 불사" 출사표

9월 18일 후보자 등록, 기호 1번 배정
– 서울 흥천사 느티나무어린이집서 첫 일정

9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종책 기자회견
– 10대 종책 기조 등 공약 발표

10월 11일 선거 호소문 발표
– "종도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것" 다짐

10월 12일 234표로 총무원장 당선

진짜 어려움은 적폐청산연대와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었다.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운동과 해명 작업을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선거대책본부 홍보기획단장 정만 스님은 "무작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 10월 11일 저녁 6시 설정 스님은 그간의 소회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원로 스님과 본사 주지 · 중진 스님들을 비롯한 선거인의 소중한 고견과 경책을 마음으로 듣고 새겼다"며 "저는 앞으로 조고각하하고 하심하며, 종도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10월 12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일. 설정 스님은 234표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9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35일 동안의 노정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신성민 기자

